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460.46 (-181.75)	1136.64 (-22.9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552 (-0.006)	1504.05 (+4.36)

LG전자
'더 베스트 OLED'
글로벌 TV시장 접수
02



물가·성장·환율·부채·부동산·전쟁까지 한은, 복합적 리스크에 통화정책 선행법 '골머리'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동발 시장불안과 취약부문 부실, 수도권 집값 리스크를 동시에 경계했다.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5.3으로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이는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말 48.1로 장기평균(45.4)을 웃돌며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누적된 상태임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불안지수 '주의단계' 위기는 아니지만 긴장요인 상존
자영업자 대출연체 1.86% 달하고
1900조 '가계부채', 집값 상승 등
잠재 리스크 동시다발적 확대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부문 부실은 점차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86%로 장기평균을 상회했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금리 상승 부담, 소비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계부채 역시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

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약 1900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변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완화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23%, 수도권 0.42%, 비수도권 0.06%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변수들이 서로 맞물려 정책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반대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은 '현재의 위기'보다는 '잠재된 리스크의 동시다발적 확대'에 있다. 겉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결합될 경우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양극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및 자금조달 리스크,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격적 안정 여부를 함께 거론하며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갔"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전기요금 웬만하면 유지... 사용 절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1970년대 2차례 있었던 오일쇼크나 2022년 러-우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자발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슬루션수법해야 되겠고, 국

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기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LG, 'AI전환' 핵심과제... 사외이사 중심체제 전환

(주)LG 이사회 의장에 박중수 교수 정기주총 통해 상정안건 모두 의결
상장사 11개 모두 사외이사 의장 체제

(주)LG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선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하며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 개편을 함께 내놓았다.

26일 (주)LG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6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총은 권봉서 부회장(COO)이 의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구광모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중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며 사외이사 중심 체제로 전환됐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으나 약 8년 만에 사외이사의



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결정으로 (주)LG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내 11개 상장사가 모두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 중 LG전자와 LG이노텍, LG화학 등 3개 사는 여성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아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였다.

구 회장은 메시지에서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가 상승,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 해였다"며 "올해 역시 지정학적 변동성과 산업 간 경계 붕괴로 사업 환경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별 기술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전략도 구체화했다. 구 회장은 "LG만의 독자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사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AI

를 중장기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LG 주요 계열사들은 주총 시대를 거치며 로봇, AI 데이터센터,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 등으로 사업 확장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주사 차원의 전략이 계열사 투자와 사업 재편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주 가치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왔다. 구 회장은 "사업 성장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소액주주가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로 전환한 배경을 묻자, 권 부회장은 "최근 법·제도 변화가 소액주주 권익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의장 체제가 이사회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원오, '시니어 복지' 공약 발표...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강화" /사진 뉴시스
▲국힘, 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잇을 만하면 탄핵 타령... 설득력 없어"

▲권영진 "주호영, 경고용 탈당 가능성...국힘 컷 오프로 대구 민심 돌아서"
▲국힘 혁신파·친한계, '장애인 비하' 박민영 재 임명에 "장동혁 사퇴하라"

▲전현희 "7만석 '서울동·아레나' 건립해 산업 대전환"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 46용사 모역 참배...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